

# 임실군, 'KBS 전국노래자랑' 열린다

##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서 28일 개최

임실군이 많은 기대 속에 준비해 온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이 오는 주말인 28일 오후 2시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 마련된 대규모 가요행사로, 지역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실의 대표 관광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 접수기간동안 신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는 문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군은 관내 유관기관과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펼쳐져 전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준비했다.

26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예심을 통해 선발된 최종 15팀이 본선 녹화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 무대는 사회적 남회석의 진행으로 펼쳐지며,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공연과 함께 김성환, 안성훈, 양지은, 황민우, 염유리 등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더해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특히, 본선 무대가 펼쳐지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총 200여 종, 2만 2000여 주의 장미가 식재된 공간이다. 약 2만7,000㎡ 규모의 '사계절 장미원'과 3만8,700㎡의 '유럽형 장미원'은 플라워가든, 러블리가든, 로맨틱로드, 장미로드 등 테마별 공간과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은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2026 임실N장미축제의 대표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 녹화행사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올라, 펜지, 아네모네 등 대표적인 봄꽃을 추가 식재해 행사장 전역에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먹거리 또한 준비된다. 푸드트럭을

통해 피자과 치즈돈까스 등 치즈 먹거리와 치즈테마파크내 한우 및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임실치즈 유제품 등도 판매된다. 또한, 노래자랑도 구경하면서, 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역사문화관과 4D영상관, 바람의 언덕, 치즈체험관, 미끄럼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3,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사장 전 구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한, 민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의료지원반을 상시 대기시키고, 주차안내 및 교통통제 인력을 집중배치해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청년농업인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소통협의체 구성·간담회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김민수)는 26일, 순창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청년농업인을 초청해 청년농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창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농초기 자금

부족, 경작지 확보의 어려움, 농지은행사업 이용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순창지사는 2025년 농지은행의 맞춤형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사업 등을 통해 전체 367농가에 156ha를 지원했으며, 이중 53명의 청년농에게 32ha



를 지원해 영농정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용 농지임대사업, 농지매매지원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기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바이오산업 연구원, 바이오기업 육성 지원

남원시 바이오산업 연구원(원장 이영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시군구 연구산업육성사업 2차년도 참여기업을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부처협업 프로젝트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사)캠텍종합기술원이 공동 수행한다.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층 지역 유입 촉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1차년도 사업에서는 남원시의 바이오기업 16개 사가 참여해 총 33건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결과 △특허 출원·등록 3건 △인증 3건 △사업화 매출 30억 원 △신규 고용 18명 △신규 거래처 11건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그린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올해 시작되는 2차년도 사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바이오소재 산업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smech.go.kr) RMS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도심지역 빈집철거 지원

남원시가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심지역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13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약 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대상은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빈집으로 한정하며,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남원시가 직접 철거를 시행, 예산 및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접수하며, 신청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소비 선순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방향 논의

###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소비 선순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조광희 순창부군수를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초소득 소비패턴 분석 결과 및 선순환 방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논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2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군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첫 지급 이후 약 3주간의 소비패턴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 전체 지급인원 22,601명에게 총 33억 9천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이 중 약 28억원이 사용돼 지급액

대비 83%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군은 이번 소비패턴 분석을 토대로 면 지역의 가맹점 부족 등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협력 찾아가는 배송 서비스(온정장터) 운영 △순창행복마을 연계 마을 배송대 운영 △기본소득 순환마켓 조성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장바구니마켓 운영 △기본소득 착한가게 인증제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농산물 판로 개척, 생활서비스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협동조합·자활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찾아가는 지역민원 현장접수 서비스 본격화

남원시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민원 현장접수'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시민 중심의 밀착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도입된 '찾아가는 지역민원 현장접수'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측량 상담을 통한 제공하자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민생 시책이다.

첫해인 2024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대상 지역을 12개 읍·면으로 확대했으며, 결과 총 263건의 지역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며 시민



밀착형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그간 축적된 수요 자료와 민원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6년 운영 계획을 수립, 올해는 민원 수요가 높은 식거리 읍·면을 우선 선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26일 운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시, 승화원 '부부 장터' 운영

남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승화원 자연장터 내 '부부 장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부부 장터 조성은 최근 급증하는 부부 단위 안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 문화를 확산해 선진 장묘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 남원시 승화원 내에 자연장터 일부 구역에 총 388.3㎡ 규모로 조성해 총 285기를 안치할 수 있다.

이중 대상은 법률상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부부 각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은 △사망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남원시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남원시 승화원에 안치된 유골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자 등이다.

사용 기간은 4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고 사용료는 부부장 1기당 100만원이며, 비석 설치 비용 35만원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지역형 영양돌봄 사업 확대 추진

임실군에서는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이사장 전준대)와 한국저탄소식생활협회(회장 김규림)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식생활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한 지역형 영양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앞서 2025년 청우면 행촌마을에서 30주 과정의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저탄소 식생활 교육, 채소 중심 조리 실습, 걷기 활동, 건강 측정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대상 마을을 2개소로 확대하고, 20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을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채소 중심 식단과 걷기 등 건강관리 활동,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